

# 현대글로비스 ‘甲질’... 하청업체 운송료 일방 인하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 상용차 운송업〉

## 수천만원 들어 트레일러 교체 화물차주들 수입 감소 반발 현대글로비스측 “손실 발생하면 추가 보전 방식 등 협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상용차 운송업무를 맡고 있는 현대글로비스가 하청 운송업체에 일방적으로 운송료 인하는 통보, 운송업체 소속 화물차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100명이 넘는 화물차주들은 상용차 1대를 더 신기 위해 7000만원 이상을 들여 트레일러를 새로 교체한 뒤 수년간 추가 운송료를 받고 운행해왔으나 갑작스런 현대글로비스 측의 운송료 지불기준 변경으로 월 300만원에 이르는 운송료가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경제 민주화와 갑을(甲乙)문화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청사항을 거스른 대기업의 일방적 횡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9일 현대글로비스가 최근 기아차 광주공장 운송업체인 대경TLS, 현성 MTS, 아진택, 파인글로벌에 보낸 공지(광주공장 적재기준 변경)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광주~목포항 구간 운송료(6대 상자 기준)를 기존 28만5000원에서 오는 7월부터 23만74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공지 대로 시행된다면, 6대를 신고 해당 구간을 운행했을 경우 기존 5대 상자 기준 운임인 23만7400원만 지급한다는 것으로 차량 1대는 ‘공짜’로 탁송해달라는 것이 운송료 지불기준 변경의 핵심이다.

현대글로비스가 운송업체에 통보한 대로 운송료가 변경되면, 화물 차주들은 기아차 광주공장~목포항 구간을 하루 3차

### 현대글로비스 통보 내용은

광주~목포항 구간 운송료  
현행-6대 상자 기준 28만5000원  
변경-다음달부터 23만7400원

결국 5대 상자 기준 운임 지급  
1대는 공짜로 탁송해 달라는 셈

### 운송료 일방 인하 논란 보니



레 왕복 기준으로 하루 평균 14만2800원(47600×3-운송업체 수수료 포함)의 수입이 줄게 되고 한 달 기준 최대 299만8800원(월 21일 영업)의 수입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 현대글로비스 측은 트레일러를 교체한 차량이 많은 운송업체일수록 불량이 대한 오더를 많이주고, 현금 사정이 좋은 운송업체는 일부 화물차주들에게

트레일러 교체 비용 일부를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트레일러 교체를 독려 내지는 중용해왔다는 게 화물 차주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파인글로벌 소속 화물차주 김모(52)씨 등 25명을 비롯 ▲현성 MTS 소속 41명 ▲아진택 소속 15명 ▲대경 TLS 26명 등 화물차주 107명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자부담으로 트레일러를 교체했다. 기존 5대 상자 가능했던

### 화물차주들 수입 변화는

3차레 왕복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14만2800원 수입 줄어  
한달 최대 299만8800원 감소

7000만원 들어 트레일러 교체  
할부 비용도 맞추기 힘들어

트레일러를 버리고 7000만원 가량을 들여 최대 6대까지 상차 가능한 트레일러를 신규로 설치한 것이다.

화물차주들이 비용을 들여 트레일러를 교체한 것은 1대를 더 신고 운행하면 빠르면 3~4년 이내에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추가로 실은 1대 몫의 운송료가 고스란히 자신의 이익으로 돌아올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실제로 최근 3년 이상 현대글로비스 측은 추가로 상차한 1대 몫의 운임을 운송업체에 지급해왔으나 돌연, 오는 7월부터 몇 대를 상차하든 관계 없이 최대 5대 상자 기준으로 운송료를 지급한다는 통보를 해온 것이다.

화물차주 김씨 등은 “현대글로비스 측이 통보한 대로 운송료가 줄어들게 된다면, 트레일러 교체 할부비용과 유류대, 차량 유지비, 식대, 통행료, 주차비 등을 모두 제외하면 월 소득이 마이너스 상태가 될 것”이라며 “현대글로비스는 거대한 갑(甲) 앞에서 임금을 빼앗길까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물차주들이 서로 연대해서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6대 상차했을 때 화물 차주들에게 돌아가는 운임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오는 11일 광주에서 화물차주, 운송업체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차주들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추가로 보전하는 방식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오늘 세월호 재판...광주지법 법정 미리 공개

## 보조법정 마련하고 화상 증인시설·응급상황 교육 등 준비 만전

세월호 이준석(68) 선장 등 15명에 대한 형사 재판이 시작된다. 법원·검찰은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첫 공판을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법원, 법정 리모델링에 검색도 강화  
=광주지법은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업) 심리로 열리는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법정 안팎에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미리 법정을 공개했다. 법원 내에서는 ‘사법 사상 최초’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우선, 15명의 피고인이 한꺼번에 재판 받을 수 있도록 법정 구조를 바꿨다. 8석에 불과했던 피고인·변호인 자리를 24석으로 늘렸고 공판에 참석할 검찰 측 자리도 4석에서 6석으로 늘렸다. 보조 법정을 마련하고 영상·음향 설비를 갖춰 피해자 가족들이 재판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법정 앞에 의견서를 비치해 피해자 가족들이 법의견을 수렴한 뒤 공판 과정에서 반영하는 한편, 단원고 학생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경우에 대비, 화상 증인 시설도 갖췄다.

또 사건 심리를 위해 담당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로 배재했고 선고가 예정된 사건을 제외한 담당 재판부 사건을 재배치했다. 세월호 재판이 열리는 2층에서 열리는 다른 재판 일정도 조정했다. 재판 참석자들을 상대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교육’을 실시, 재판 과정에서 윤보· 분노 등을 억누르지 못하는 방청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토록 했다. 전문 강사를 초빙, ‘세월호 피해자 심리상태 이해를 위한 사전 교육’도 진행했다. 법원은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 광주지방경찰청에 정사 시설 보호 등을 요청했다.

◇검찰, 공소 유지 총력=검찰은 재판 준비를 위해 방제작어 강력부장 등 5명의 공판관여 검사를 선정,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 대부분이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선장 등에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강원식(42)씨, 김영호(46) 2등 항해사, 박기호(53) 기관장 등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부작위 살인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검찰은 살인 피해자를 기소 당시까지 확인된 희생자 수로 특정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인정신문 뒤 사건 전체의 성격과 정당한 논고성격을 면 또든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아울러 검찰 홈페이지 등에 피고인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진정서 형태로 추가 제출했다.

◇변호인, 피해자 배려·의견 전달에 총력=대한변호사협회와 광주지방법변호사회는 세월호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았다. 변협측은 사전에 광주지법을 방문, 피해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광주지방법변호사회도 10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이 열릴 때마다 2명씩 재판을 참관기로 했다. 광주지방법변호사회는 이미 2주 전부터 매일 2명씩 진도 팽목항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 중이다.

현재 15명 피고인의 변호는 국선 전담 변호사 6명과 사선 변호사 1명이 맡는다. 법원 안팎에서는 2명 사선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계를 제출하자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부당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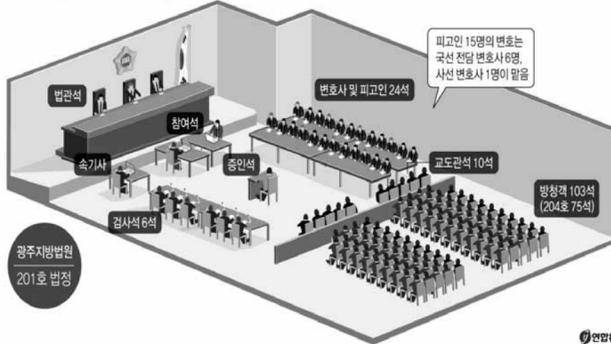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피고인·변호인 24석...변호사 국선 6명·사선 1명 검찰 6석으로 늘려...선장 등 살인혐의 적용 쟁점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 9일 재판 장소인 광주지법 201호 법정이 미리 공개됐다. 광주지법은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법정 리모델링 및 보안 검색 강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다.

### '세월호 승무원 재판' 법정 내부도



### 4층 발견 남성 시신은 단원고생

8일 밤 세월호 선내에서 발견된 남성 시신은 단원고 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9일 법정부사과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경 세월호 4층 선실에서 발견된 남성 시신에 대한 신원을 확인한 결과, 단원고 학생으로 확인됐다.

대책본부는 1차 지문 검사를 했으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지자 DNA 검사를 했다. 이 학생은 키 175~180cm에 흰색 긴 팔 티셔츠와 어두운 색깔의 청바지 차림이었다. 세월호 침사 사망자는 현재 292명이다. 실종자는 12명이며 이중 학생은 6명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선택형 수능 폐지 감사청구 일선 교사 1719명 서명

고교 진학지도 교사와 입시정책 연구교사들이 결성한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는 선택형 수능시험이 폐지되고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의 수능 영어 대체가 무산될 것과 관련,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감사 청구사항은 ▲선택형 수능과 국가영어능력시험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되게 된 배경과 책임자 규명 ▲정책 입안부터 조기 폐지 결정까지의 과정에서 초래된 예산 낭비 실태 및 책임자 규명 등이다.

교사연대는 감사청구를 위해 1719명의 교사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버스로 만원 내고 거스름돈 달라 난동

버스요금 만원을 내고 거스름돈을 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경찰서행 109번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62)씨는 지난 8일 밤 10시40분께 버스가사 신모(50)씨가 운전한 화순군 능주역발 세영운수 지원152번 버스에 탑승, 만원을 요금통에 넣은 후 거스름돈을 빨리 달라며 난동을 부려 승객 2명이 다른 버스로 타게하는 등 무리를 방해했다는 것.

김씨는 거스름돈을 받은 후에도 소란을 피웠는데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동귀 학동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 고 의욕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황실수술. /백희준 승무기자 bhj@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5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3타경 29156	2	북구 우치로383번길 3, 101동 1층 107호 [아파트]	대	24,000,000	
2014타경 3496	1	서구 내방로251번길 9-1 1층63, 80㎡ 2층2동 [상점등, 광양하이마트] 84, 96㎡	아파트	120,000,000	
2014타경 3663	1	광산구 소촌동 603-3 송광3차아파트 301동 6층 709호 59, 94㎡	아파트	71,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3타경 33056	1	북구 중흥동 715-6 156㎡ 경남로234번길31 51, 23㎡ 부속건물27, 27㎡ [점포및주택] 제시외주택일부18, 7㎡	단독주택	118, 310, 94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3타경 33223	1	동구 소태동 573-25 180㎡ 동구 남문로622번길 9-1 1층63, 80㎡ 2층2동 .59㎡ 부속건물 변소및창고3, 27㎡ [현황합실] 7, 14㎡ [현황화장실, 다용도실] 22, 68㎡ 제시외 현관 등 49, 6㎡	단독주택	173, 877, 85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4타경 1155	2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425-2 18평 제시외 다용도실 44, 7㎡	단독주택	43, 341, 800	건물만매각대상, 제시외건물포함

[대지/임야/전답]

2013타경 29286	1	영광군서면서마리94-3 1131㎡ [공유자정 제현지번2번의1전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4, 410, 900	공유자유전매수권 행사1회로제한
2013타경 31654	1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549-3 10880㎡ 동소 549-6 736㎡ 동소 550-3 489㎡	교수원	207, 378, 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1155	1	나주시세지면송제리206-14 2970㎡ [공유자 인산지번2번의1전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16, 335, 000	공유자유전매수권 행사1회로제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4타경 1322	2	화순군 북면 이천리 64-3 208㎡	전	2,08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4277	1	영광군 군남면 설매리 608-3 832㎡	대	8, 153, 6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5010	2	나주시 영산동 793-15 3000㎡	답	61, 200, 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북구 서화로97 1층3365, 80㎡ 2층215, 4㎡ 3층3392, 80㎡ 4층215, 4㎡ 지하1130, 95㎡ 제시외 창고 등 223㎡	답	29, 784, 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3타경 30774	1	북구 매곡동 371-9 1063㎡ 동소 371-10 434㎡ 동소 372-3 238㎡	대	3, 059, 122, 01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옥책4공유자 [주]국보지번4분의1전부
--------------	---	---	---	------------------	--------------------------------------

[기타]

2013타경 29156	1	서구 양동 5-396 4.8㎡	도로	5, 472, 000	
2014타경 1322	1	화순군 북면 이천리64-1 300㎡ [현황대지]	전	43, 406, 000	일괄매각, 옥책4공유자
2014타경 1810	1	광산구 산막동 456-2 913㎡ [현황주유소용지] 제시외 가옥 등 115㎡	창조지	219, 495, 1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공장지대법률전문법정지재외갈음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 지방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여부 하는 최고가채수고인인 매각결정가격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

##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영석

2014. 6. 10.